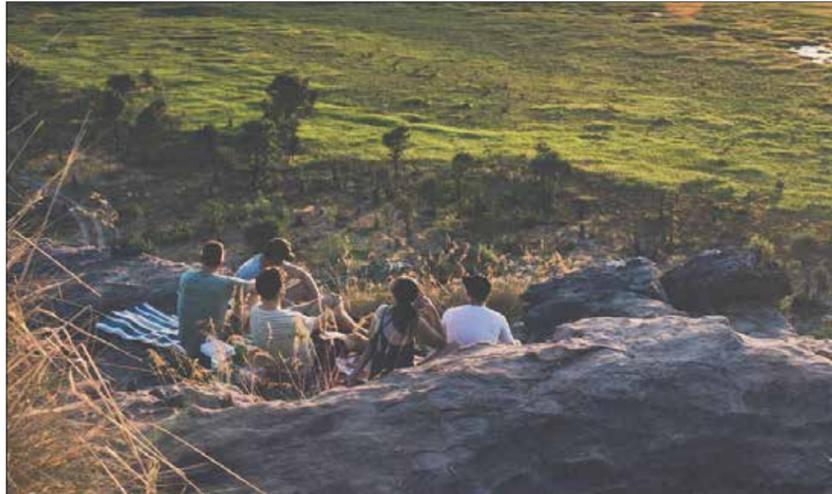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그 안에 늘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단에 소속하라 그러나 집단주의는 피하라 교회가 믿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

시트콤 치어스(Cheers) 테마곡이 묘사하는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에, 어떤 집단(tribe)에 소속되는 것, 나만의 특정한 장소를 만드는 것에는 인간적 매력이 있다. 중학교에서 "절친"을 만들든, 대학교에서 동창이나 친목회에 가입하든, Cross Fit 체육관에 등록을 하든, 정치적 심복들을 모으든 관계없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진 갈망이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 많은 복음주의자 신도들은 파이퍼, 켈러, 데버, 맥아더 또는 드영과 같은 주요 지도자들과 관련된 집단에 소속하고 싶어 한다. 신학적 집단에는 종종 '복음 중심' 또는 '개혁' 같은 신앙고백 딱지가 붙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 감정과 겹쳐서 보수파 또는 진보파와 같은 별명을 사용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다.

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장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살기에 완벽한 장소로 에덴동산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첫 조상이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분향은 바로 깨어졌다. 즉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인류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심지어 땅과의 관계에서조차 깨어짐과 분열을 경험한다(창 3:14-16).

명확한 경계를 가진 특정 집단에 속하고 싶은 갈망은 건강한 결과 아니면 좌악일까? 집단에 대한 욕망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왜 항상 '우리 대 그들'이라는 뿌리 깊은 집단 사고방식으로 쉽게 타락하는 걸까? 집단에 대한 건강한 갈망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은 거기에 잠재된 고유한 위험에 대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는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보겠다.

최 없는 우리의 구주는 아버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사셨고 종종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셨지만(막 1:35), 그런 예수님조차도 인간관계와 깨어진 세상에 미치는 심각한 죄의 영향력을 경험하셨다. 그는 결코 아름답게 가꾸어진 동산에 거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마 8:20). 그는 또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현실도 현명하게 인식하셨다(마 13:57; 막 6:4; 눅 4:24; 요4:44).

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장소를 준비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다 이런 일관적인 인간적 경험 때문이라고 믿는다(요 14:1-3). 이 세상에서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행복을 미리 맛보는 곳이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가 믿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분향이 주는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집단에 대한 갈망은 옳고 좋지만, 문제는 죄가 우리의 모든 욕망을 타락시키는 현실이다. 집단에 대한 갈망에서 집단주의로의 추락을 나타내는 신호는 무엇일까? 여기 세 가지 경고 신호가 있다.

1. 저 바깥에서는 항상 잘못된 것만 보기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이는 지역 교회, 네트워크 또는 교파에서 신앙고백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연합을 추구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풍자하는 데도 빠르고 또 쉽게 과장하면서 우리 자신의 실패를 최소화할 때, 연합 집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타락한다. (3면으로 계속)



거짓말에 맞서 싸우자!

거짓말과의 전쟁 (상) - 네 개의 전선

우리는 많은 학자와 문화 관찰자가 "탈 진리(post-truth)"라고 부르는 시대에 지난 십 년에 걸쳐서 살고 있다. 2016년에 "탈 진리"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옥스퍼드 사전은 이 용어를 "여론 형성을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관계있거나 그런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진리 주장에 대한 회의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을 특징짓는 건 다름 아니라 탈 진리 현상을 증폭시키는 여러 요인이다. 소셜 미디어의 부상은 거짓 정보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메아리 환경(echo chambers)을 만들었다. 기존 미디어 매체, 대학, 종교 기관 같은, 정보를 제어하던 기존 여러 기관의 영향력

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이 나누는 서사가 조각조각 파편화되었다. 더불어서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사실여부의 근거와 관계없이 기존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탈 진리 시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준다. 진리라는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부터 던지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까? 감정싸움이 논리적 주장을 압도하는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공격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 증언의 진실성(integrity)을 유지할 수 있을까? (3면으로 계속)



시론 2면
민경엽 목사



목회대상 3면
여병현 목사



푸른초장 4면
허윤준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24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4년 8월30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4년 8월3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4년 9월3일(화) - 9월5일(목) 저녁7시45분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시론

실패와 성공 사이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성경은 사람을 미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자라 해도 그가 허물이 있는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곤 한다.

바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그도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2차 전도여행 중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철학과 수사학을 좋아하고 종교성이 풍부한 점을 고려하여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도하였다.

목사는 강단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다. 어느 날은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다. 내심 설교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다.

어느 교회에서 5, 6학년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였다. 여름 수련회 때마다 유명한 외부강사를 모셨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였다.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개강예배를 드릴 때부터 은혜가 임했다. 개강예배는 대개 의례적으로 드리지 않는가? 잔디밭 펠빙 아래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모세는 왜 유배의 삶을 택했는가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미리 기록된 복음을 만난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각색된 여러 영화에 근거한 출처 불분명한 디테일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이 많은 세대라면 이집트인 여자 친구를 둔 모세를 묘사한 세실 트윌이 감독한 심계(1923, 1956)를 기억할 것이다.



배의 삶을 택해야 한다.

유배의 삶을 택하기

모세의 원래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놀라운 요약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전당"에서 우리는 모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는다.

모세의 원래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놀라운 요약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전당"에서 우리는 모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는다.

은 항상 구원자를 부르짖는다. 그리고 구원자는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찾아온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보다 뛰어난 여자의 후손을 멸절시키려는 뱀의 형상에 사로잡혀 있다(출 2:3).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집트의 영적 능력을 기적적으로 지배하는 구원자로 성장한 여자의 씨의 활약은 이집트 자손에 대한 심판에서 절정에 달한다(12:12).

자비로운 모세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라기보다는 율법의 창시자로 더 익숙하다. (7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현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한국기독교인을 위한 Dating Site를 소개합니다
www.CKsingles.org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1st Event SINGLE CHRISTIAN PHOTO CONTEST
SUBJECT: MY CROSS
DEADLINE: Sep 30, 2024
FOR THE KOREAN SINGLES
www.CKsingles.org

2차 행사 계획 찬양팀 축제 Praise Team Festival
HOST: www.CKsingles.org
자세한 것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Email: cksinglesusa@gmail.com
INQUIRY: 516-398-8289 H. Lee 646-369-7124 Chris Cho

집단에 소속하라...

(1면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우리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값비싼 교훈을 잊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은 국가를 가르치지 않고, 계층을 통과하지도 않으며, 정당을 나누지도 않는다. 그 선은 오로지 인간의 마음을 통과한다. ... 그리고 가장 선한 마음속에조차도 ... 뿌리 뽑히지 않은 작은 악의 구석이 남아 있다.

당신에게 행여 내가 속한 집단이 잘못을 저지를 리가 없고 다른 집단은 결코 옳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가? 한 집단을 우상화하고 다른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족한 교리와 더불어서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영한다.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고전 3장), 이는 또한 미성숙함의 표시이기도 하다.

2. 은혜와 인내의 부족

개인적으로 또 인내를 가지고 교류하기도 전에 행여 외부인을 마음에서 무시

하거나 또는 아예 드러내서 거부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와 몇 가지 주요 신학적 요점에서 의견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와 은혜를 가지고 교류하는 모범을 보였다. 만약에 그들이 상대를 배격하고 취소하는 태도로 선교에 임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환대와 관용이라는 더 먼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길을 더 충분히 설명했다"(행 18:2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갔던 길을 따라 가도록 하자.

3. 선한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기

세상에는 인종과 민족의 조화에서 비롯해서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한 성경적 이해에까지 이르는 선하고 경건한 대의가 많이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을 좋은 것 중심으로 만들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 가지 방법은 완벽한 정의, 순종, 자유, 위안과 같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실재를 지상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결코 당장이라도 이 땅을 자국을 갖춘 영혼이 거주하는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집단의 선한 대의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 해결책으로 이끄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주는 혜택과 의미를 우리 자신의 궁극적 대의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에 대한 열정과 추구가 다르더라도(롬 12:18), 형제자매들과의 하나 됨과 복음적 연합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고 있다. 조만간 우리는 "모든 족속과 언어, 그리고 온 세상 백성과 나라"(계 5:9)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도시에 거할 것이다.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고정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을 찾음으로 집단주의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싸우자.

by G'JOE JOSEPH, TGC

목회단상

자신감과 자존감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자신감'과 '자존감'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자기 신뢰감의 준말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란 자아존중감의 준말로,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느낌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존감이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자신감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자신감은 성취를 통해 타인에게 존중받으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비난함으로 자존감이 상하게 되면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버럭 화를 내거나 타인을 비 인격적으로 대하며 보복적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존감이 높다면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방어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자만심이 되고,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제보다 스스로 과대 평가하게 되고 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약해지면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고, 자존감이 너무 과하면 과대 망상에 빠져 자만하기 쉽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처럼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게 되면 자신도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부담을 주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자존감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흠으로 만들어져 연약한 과소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생령이 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재능, 소유의 과다와 현실적 환경을 비교해 그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취에 대한 보람과 감동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얻어지는 구원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세, 물질과 재능과 소유하는 모든 것이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내 명예나 행복을 지켜줄 것처럼 자만에 빠지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문벌, 학벌, 경력, 소유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설물처럼 모두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나 원망과 비방을 하지 않고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지만 우리가 갈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낯익은 자존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 올리고 내가 무엇인 할 수 있다는 낯익은 자존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cefyeo@hanmail.net

거짓말에 맞서 싸우자!

(1면에서 계속)

진리, 거짓말, 그리고 사탄

탈 진리 세상이 가져다준 여러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18:38).

진리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인 동시에 성경이 전제하는 정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reality)에 부합하는 무엇이 진리라는 것이다. 철학자 J. P. 모어랜드가 설명하듯이, 진리 대응 이론에 따르면 "진리는 실재에 부합하는 명제(신념, 생각, 진술, 표현)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건 성경이 말하듯, 궁극적인 실재, 즉 가장 진짜 실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다(요 14:6).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 또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실재와 부합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재와 부합하지 않는 무엇이 궁극적인 실재인 예수님과 부합할 리가 없다. 따라서 실재와 부합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다. 거짓말은 틀린 진술을 하거나,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남기기 위한 행동으로서 특히 진리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것이다(물론 상대가 진실을 들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다(예: 사 2:4)). 거짓말은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예수님과도 정반대이다. 탈 진리는 실재가 아니라 비실재에 의해서 그리고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존 마크 코머는 "오늘날의 문제가 단지 거짓말을 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예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재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영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라고 지적한다. 탈 진리 세계에서 우리는 코머가 "거짓말과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현실의 최전선에 있다.

우리는 거짓말과의 전쟁뿐 아니라 애초에 전쟁을 시작한 자, 즉 마귀와도 전쟁도 함께 벌이고 있다. 요한복음 8:44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마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귀신 들림이나 고통과 같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는 매우 교묘하다. 1836년에 존 월킨슨은 이렇게 썼다. "사탄의 계략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따라 나오는 이 시대의 당연한 귀결이 다름 아니라 마귀의 핵심 술책이다. 바로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악을 가져오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진리와 거짓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진리 아니면 거짓말 사이에서 선택해

야만 한다. 우리는 실재와 예수님 편을 들거나 아니면 거짓말과 사탄의 편을 들어야 한다. 사탄의 편이 된다는 건 거짓말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편을 들면 요한복음 8:32에서 말했듯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두 가지 선택이다.

거짓말과 벌이는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까지 개발해야 한다.

네 개의 전선

거짓말과의 전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네 가지가 핵심이다.

1. 감정 비진리

탈 진리 현상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적 증거보다 사람들이 감정, 직감 또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그리고 감정이 초래하는 비진리에는 추상적인 데이터나 전문가 의견보다 직감과 개인적 경험을 더 신뢰하는 인간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오래 간직한 신념, 개인적 정체성 또는 외상적 경험과 연결되는 경우에 감정적 반응은 특히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렇다고 감정적 반응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항상 비이성적이라는 건 아니다. 감정도 얼마든지 그때그때 다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귀중한 직관적 가이드 역할을 한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제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gsdale, PA 19446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EN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탄성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영양제도: 오후 8:00 목회 상담, 종교상담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3, www.bostonkorea.org 3185 St. John's St, Woburn, MA 01748	센터빌안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양제도: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836-6675, www.koreancpc.org 2545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저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as.com 600 Kro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제도: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8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842-0288 Fax: (215) 8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제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 213-1200 (254) 65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636-6675, www.tacomacp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집중력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말라. 두 번째 화살이 있으면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오사카 상인들’이란 책에 나온 일본 교도 상인의 계명 중의 하나입니다. 사냥할 때, 화살이 단 하나밖에 없으면, 오히려 놀라운 집중력

을 발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야구 경기에도 “공 하나에 죽고, 공 하나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수가 공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토끼 두 마리를 쫓다가는 둘 다 놓친다.”라는 속담

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세론 Q. 두몬), “선택과 집중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다.” 등 ‘집중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프로 골퍼 박세리 선수도 자신의 성공 비결이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도 한 곳을 집중해서 땅을 파야 물이 나오고, 뛰어난 사진작가라도 원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중’으로도 부족합니다. ‘초집중’, ‘영어로는 레이저 포커스(Laser Focus)를 가져야 놀라운 성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햇빛을 돋보기의 볼록렌즈로

모은 한 가닥의 빛이 먹지를 태웁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밀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종목인 총(사격), 칼(펜싱), 활(양궁)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도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야 할까요?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의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초 집중해야 합니다.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1대, 2대, 3대 왕인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초 집중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

은 무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 했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심입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 죄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행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에 초 집중하며 살고 있나요? 크리스천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싱글 포커

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 계명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곧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집중합시다.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푸/른/초/장

허윤준 목사
(뉴욕 새생명교회)



오늘 본문 말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래간만에 서로 힘을 합하여 모압왕을 혼내 주려고 기세등등하게 전쟁을 나갔는데, 적과 싸우기도 전에 마실 물이 떨어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면 세 왕,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과 에돔왕으로 더불어 길을 출발한 지 7일 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시사철 흐르던 강물이 매달라 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채 치르기도 전에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현상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찢찢떨떨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사역이 생각한 대로 착착 되면 좋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압박한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사도 행전의 부흥을 사모하며 전진해야 하는데, 당장 말라버린 심령의 골짜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펜데믹이 아닐지라도 다른 여러 영적인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영적인 전쟁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성격, 신앙 등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본문도 그 당시 두 왕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다? 10절에 여호람은 절망에 빠진 나머지 탄식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이 떨어지자 즉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여 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자신들이 나가놓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잡혀 죽게 하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말처럼 하나님께 물음만한 선지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적이 일으킵니까?

도가 응답 된다는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필요할 때에는 아이들도 때를 씁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는 가만히 조용히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성대곡 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가 필요한 것을 놓고 방성대곡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순진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의 종들은 사역을 오래 하실수록 순진해져야 합니다. 사람과도 대화를 해보면 말 길고

1) 골짜기를 파되, 이 골짜기에서 파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뎌 골짜기, 물이 말라버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별로 매력적 없어 보이는 곳,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파야 할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은 안되면 자꾸 다른 곳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개천을 파고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바람도 비도 없는 데도, 물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천에 골짜기를 많이 파서” 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의 기적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온 백성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지 않고 그 말라버린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치고 힘이 들지만 하루종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지만 물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개천을 많이 팠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괜히 고생만 했다고 더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개천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소제를 드린 시간 즉 온 백성이 일어나 아침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본질에 충실해도 여전히 물은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현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면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타협하고 적당히 부끄럽게 일을 이루는 것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산 것을 감사하며 오늘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jameshur63@hotmail.com

“믿음이 기적이 되는 목회!”

열왕기하 3:9-20

1. 중보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 40, 30, 20 아니 10인이면 멸망치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 열 명이 없었기에 결국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창 18: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 롯을 구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는 저절로 응답 됩니다.

2. 부르짖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점점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성경에 부르짖는 기

많이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순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 순진하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진정한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되는 것은,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16절로 18절을 보시면, 기도하며 찬송할 때 여호와 신이 감동하여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2)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개천에 물이 많이 채워지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오려면 먼저 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한 대로 믿고 샘을 파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꿈과 비전을 갖고 샘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도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불도저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잘 삽니다. 엘리사는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타이틀 IX -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IX 재작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미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5-4 판결을 통해 타이틀 IX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수정)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함으로, 우선은 여학생들의 스포츠에 남학생들이 "여자"라고 자칭하고 들어가는 것을 미연방 차원에서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5:4의 판결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Title IX이 무엇이며, 크리스천으로서 왜 타이틀 9의 개정을 반대해야 하는지 간단히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타이틀 IX란 무엇인가?

타이틀 IX는 1972년에 통과된 연방 민권법으로, 미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가 남, 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이 법에는 간략하나 명확하게 37개의 단어로 다음처럼 남녀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참고로, 1972년에는 성별(sex)에는 오로지 남,녀 두 개의 성별만이 법적으로 인정하였기에, 타이틀 9에 적인 "sex"란 오직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에 대한것임을 기억하세요.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basis of sex,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education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 미국 안에서 그 누구도 (남,녀)성별을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참여가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이틀 IX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4년 4월 19일, 바이든 대통령 2021년에 뽑은 교육부 장관 미가엘 아래 움직이는 미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현 바이든 / 카말라 해리스의 LGBTQ+++ 성향 들을 공식적이고 법적인 "sex, gender identity"로 바꾸도록 새로운 규칙 교육 개정안의 Title IX를 발표했습니다.

1972년도에 이미 "남녀 차별금지"법안으로 잘 시행됐던 타이틀 9안에 있는 "(남,녀)성 차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The rule newly defined sex discrimination to "include[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stereotypes, sex characteristics, pregnancy or related condition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89 Fed. Reg. 33886 (2024).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성별 성격, 임신 또는 임신 관련 질환, 성향,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89 Fed. Reg. 33886 (2024).

따라서, 지난 50년간 이미 공정하게 시행돼 오던 Title IX(타이틀 9)의 본래의 "남녀 성차별금지"라는 법안 정의 안에 LGBTQ++ 동성애/트랜스젠더 외 수많은 성향들을 포함한 "포괄적 성향/성젠더"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번에 미연방대법원에서 반대가 아닌 통과가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였을까요?

우선, 공립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초, 중, 고등학교들 경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이 미 전역적으로 즉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남학생도 "Girls-Only:여학생 전용" 학교 활동(school activiti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화장실, 라커룸, 야간 현장학습 숙소(overnight field trip housing for GIRLS ONLY)에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느낌" "성향" "성정체성"에 따라서 사용을 따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야간 숙소까지도 생물학적 남학생이 여학생 방에서 그리고 같은 침대 사용까지도 허용하게 됩니다.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성희롱" 그리고 "sex discrimination 성차별"의 정의와 대상이 완전히 바뀌거나 큰 혼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부당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한 예로, '성별을 잘못' 지칭하는 학생과 교사에게 성차별 및 성희롱 성적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를 그 사람의 '선호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생물학적 성별로 지칭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타이틀 9에 의해, "성희롱" 또는 "성차

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적법 절차 보호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즉, 여학생이 여학생 방에 들어온 생물학 남학생(그러나 스스로 여자라고 자칭하는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어도, 여학생의 고소는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 남성)을 차별한 것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엄청난 벌칙까지 받는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운동경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변화가 미 전역 공립학교에서 적용됩니다:

생물학적 남성도 여학생 전용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새로운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여학생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던 모든 시설 안에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여학생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해도요)

생물학적 여성은 신체적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지만, 거기에 대한 보호, 안전 막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성별이 분리된 공간(예: 라커룸, 화장실, 운동-의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연방대법원에서 지금은 막아 졌지만,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허용이 된다면, 미 전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안전과 남녀 스포츠 및 학교생활의 공정성이 매우 크게 훼손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원의 5:4 판결은 그냥 생긴 판결이 아닙니다.

1972년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타이틀 IX 법을 개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연이어 패배한 뒤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방법원 판결 8건 중 7건에서 패소했고, 항소법원 의견 3건 중 3건에서 패소했습니다(3건).

하지만, 가장 높은 미연방대법원의 5:4 도 주목할 이유 들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참조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희 교회는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주일설교를 다른 목사님께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어느 평신도 집사에게 부탁하여 설교하게 하였는데 평신도가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지요?

- 셀비치에서 Kim

평신도도 주일 설교할 수 있는가?

A: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도의 전문사역입니다. 설교사역은 성경을 조금 안다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일 설교는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사도 어려운 설교사역을 집사에게 주일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설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했던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3년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루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면 그제서야 강도 즉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강도사가 되어야 주일 설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도사에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다. 그만큼 설교하는 것이 어렵기에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3년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거쳐 자격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은 그만큼 설교사역이 어렵고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내용도 좋아야 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고 준비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솔직히 목사가 되고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역시 어렵고 떨리는 사역입니다. 목사가 주일설교를 위해서 쏟아붓는 노력과 열정과 시간은 엄청난 것임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고 전문성(Professionalism)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전문성 시대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을 때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차를 고치는 것이나 컴퓨터 고치는 것도 전문가를 찾아가야 고장 난 것을 제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고 고치는 설교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특수 상황에서 새벽기도회까지 외부강사를 모시기 어려우므로 새벽기도회는 평신도 리더로 하여금 QT와 간증을 겸하여 할 수는 있어도 주일설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혹 장로님이 계신다면 주일설교를 한 번 정도는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강사를 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장로님들도 주일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교회 일군을 집사와 장로로 두 반으로 나눕니다. 장로도 치리 장로와 치리와 강도를 겸한 장로 즉 목사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강도를 하는 것이 주 사역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 원리를 통해 볼 때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신부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직자라기보다 목회를 위해 훈련받은 목회 전문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전문사역자가 되도록 조직신학과 교회사, 교회 정치 및 설교사역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설교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설교자의 신학이 담겨져 있고 신앙과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설교를 맡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면 어떤 하고 설교시에 화답을 하여야 합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무거운 짐이기도 하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Midwest University

미드웨스트 대학교 국제 문화 예술 대학원

Locat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Contact art@midwest.edu (636) 327-4645 www.midwest.edu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창의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FA/DEA

- Art Education, Ballet / Dance Performance, Natural Lacquer Art, Sculpture Art, Arts Therapy, Design Art, Painting Art, Ceramic Art, Jewelry Design, Photography

학점 학위 취득 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목회와 선교

이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효과에 함몰된 비뚤어진 전도 인식

필자가 얼마 전에 단골로 다니는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옷을 찾으러 갔다가 한국 여자 주인이 저에게 인사차 건네준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여서 나누려고 한다. 날씨가 무척 더운 오후 시

간이었다. 여자 주인분은 LA 일대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OO교회 권사 직분자다. 그 주인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건넸다. "날씨가 무척 더우시죠? 이렇게 더

운 여름에 전도를 하시면 효과가 있으세요?" '효과'라는 단어가 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 하였다. 그동안 현장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자주 들었던 표현이었는데도 그 날따라 그 여자 주인분이 건

넌 말이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많은 현대 교회 구성원들이 함몰되어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전도를 떠올리면 바로 효과를 제일 먼저 연결 짓는다. 그렇게 전도에서 효과를 제일 먼저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역질문을 던지고 싶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과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전도를 시도하면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된다.

필자가 잘 아는 어느 목사가 이 작년에 한국에서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런데 그 목사가 22년 전에 6살 된 딸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딸을 찾아서 22년간을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전역을 다녔다. 22년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섰던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도 다 소진한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전도를 왜 하는가에 대한 기초 질문 앞에 엄중하게 서야 한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이 지지하는 확실한 답을 갖지 않았다면 거룩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성경님의 인도를 따라 진지하게 살펴보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이 담겨 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알아가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전도'와 '양육'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것이고 찾은 자식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당신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은 찾아 나서는 전도의 효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헌신으로 가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쁜 대표적인 모습이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기독교인 5명중 4명 "기독교 영화는 효과적인 전도 도구"

미국의 크리스천 5명 중 4명은 '기독교 영화가 효과적인 전도 도구'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비기독교 지인과 함께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6일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워치에 따르면 최근 미국 성도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매우 동의+동의)가 기독교 영화가 효과적인 전도 도구라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2%는 기독교인이 아닌 주변 지인을 초청해 기독교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18~34세의 경우 26%, 35~49세(21%), 50~64세(8%) 등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영화를 본 뒤 기독교 서적 독서로 이어지는 경향도 엿볼 수 있었다. 성도 3명 중 2명(65%)은 '지난 1년 동안 성경 외에 기독교 서적을 최소 한 권 이상 읽은 적 있다'고 답했다.

올 들어 미국에서는 가족간의 사랑과 용서 등 기독교 가치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화 '라이프마크(Lifemark)'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1970년대 미국의 10대들을 중심으로 한 영적 대각성 운동 실화를 담은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Jesus Revolution)'은 지난해 개봉 이후 미국 박스 오피스 3위를 차지하는 등 기독교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라이프마크의 공동 제작자 스티븐 캔들릭 감독은 "시각적이고 영상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영화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실을 공유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나토 방위비 GDP 대비 3%는 돼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과



관련해 "나는 모든 나토 국가가 반드시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토 방위비 기준은 GDP 대비 2%다. 지난달 기준으로 회원국 32개국 중 20개국 정도가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준을 더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3% 지출을 주장하며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나토 국가들이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

출했다며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부담을 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지출했다"며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나.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NATO 회원국 중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유세 당시에도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 인상을 수치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면서 그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부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두고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위험한 곳에 4만명(실제로는 2만8000여명)의 주한 미군이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 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 허가 재검토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76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가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



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환경단체들은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당국이 과소 평가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미국 육군 공병단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 육군 공병단의 지난 23일자 서한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2022년 해당 공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 대수층에서 하루 2500만 리터의 물을 끌어다 쓰려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조지아주 환경 당국이 현대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새 우물 4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 공장의 공업용수 수요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됐다. 공병단은 결국 현대차 공장의 물 사용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기존 판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000명 고용 규모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건설에 착수했다. 조지아주에서 추진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올해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병단 측은 이번 환경 허가 재평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MGMA 측도 "현대차는 이

지역 주민의 좋은 이웃이 되고, 현대차의 운영이 지역사회에 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끊임없이 협력해 왔다"며 공병단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업 축소하는 글로벌 기업들

미국 IT 기업 IBM이 중국 내 연구·개발(R&D) 부서를 폐쇄하는 등 중국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중국에서만 1000명이상이 정리되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중국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IBM 중국은 이날 R&D 부서를 폐쇄하는 등 중국 사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 조정 대상은 R&D와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의 중국개발센터와 중국시스템센터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금융·에너지 등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중국 민간 기업과 일부 다국적 기업으로 바뀐다.

IBM 중국은 성명을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정한다"며 "이런 변화가 중화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BM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지에 있는 R&D 및 테스트 직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 대상 직원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1984년 중국에 공식 진출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 IBM은 '화웨이의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중국의 사방 IT 회사 견제로 사업이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부터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매장만 유지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뷰티 편집숍 세포라는 중국 내 직원 4000명 중 3%인 120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대만 외식업체 단타이퍼도 베이징과 톈진 등의 매장 14개를 폐쇄하고 중국 북부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유엔 "핵무기 경쟁 최고조" ... 핵 확산 방지 체제 '흔들'

핵무기 개발 경쟁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고 유엔이 경고했다. 주요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핵확산 방지 체제가 냉전 종식 이래 최대 압박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엔 핵 감시기관 수장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 간 긴장 관계와 중동 갈등이 1968년 핵무기 개발 제한을 위해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에 전혀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FT 인터뷰에서 "90년대에는 주요 국가들이 '우리고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이들 국가가는 이전에는 없었던 공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지도자들이 핵무기 개발에 관한 모든 것을 재고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다시 관심을 갖는 요인으로 '현존하는 모든 긴장' '동맹이 약화할 가능성'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할 가능성'을 꼽으며 "이 지점에서 핵무기 개발 요인과 매력에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부상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나라에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는지 특정 국가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다고 FT는 부연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 니콜라스 밀러 조교수는 "핵확산 위험 증가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더 치열한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FT에 말했다. 이런 시기에 강대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느라 바빠서' 핵확산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밀러 교수는 "비확산 조약 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늘 있었다"며 역사적으로는 이 체제가 예상보다 더 견고하게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최대 위험은 이란이다. 지난해 이란 당국자들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거론한 성명을 여러 내놨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정을 폐기한 2018년 5월 이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3년여 동안 무기급에 가까운 60% 순도의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핵폭탄 3개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로 무기화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리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입장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저커버그 "정치자금 기부 안 한다... 백악관 압박에 코로나 콘텐츠 삭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미국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시되는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부인과 함께 비영리단체에 4억 달러(약 5316억원)를 기부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집 조던 의원(공화당·오하이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 목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기부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년 전 저커버그 부부는 유권자 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소 설치, 우편 투표용지 분류를 위한 장비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기부했지만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 지역에 부당하게 혜택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커버그는 이번 서한에서 팬데믹 당시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백악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콘텐츠를 검열하라고 거듭 압력을 가했다"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뒤로 미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15)

(마지막회)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X. 세속화 신학 (Theology of Secularization)

(결론)

1. 세속화 신학은 신학 연구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켰다. 하비 콕스는 신론을 연구할 때 존재론적으로 (본질 혹은 실체; essence or substance) 논의하기를 멈추고 기능 (function)과 행동주의 (activism)로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론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러한 신학적인 연구는 필요 없다는 말이다.

로빈슨 감독은 신론의 연구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를 “은혜로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hn Robinson, Honest to God, The Westminster Press, pp. 45 이하).

폴 뷔렌 (Paul Van Buren)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제외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재구성 되어야 한다(reconstructed without God). 예수를 인간 실존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

다” 주장했다. 2. 세속화 신학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속화 신학은 칸트의 영향 아래서 신학 연구에서 형이상학과 존재론 (metaphysics & ontology)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신비한 실체를 부인한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바르트의 용어로 재정의 하면서 단순히 교회를 세상의 봉사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들은 교회를 기능적으로만 정의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권고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기본 의미를 제거시켰다. 이들의 교회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를 포

기하거나, 세상과 구별됨을 철폐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지상 교회가 존재하는 장소가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소가 바로 세상이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본질상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모이기와 흠여지기의 반복한다. 동일한 교회지만 “모이는 교회”(ecclesia congregata), “흠여지는 교회”(ecclesia dispersa)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흠여지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활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실체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타내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보편적인 무형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모여왔고, 모여있으며, 잠자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그분의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권속”이다.

3. 세속화 신학은 성경의 사실들을 왜곡시킨다. 로빈슨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말씀을 희화화 (caricature)시켰고, 그리고 풍자적으로 다루었다. 콕스는 그의 책, <세속도신>에서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경 본문을 매우 왜곡시켰다.

4. 세속화 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업적과 세속적인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롬 1-3장에 나타난 세상의 죄악들은 그들에게 관심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무시한다. 그들은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 원자탄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사실들을 말하지 아니한다. 인간이 과학과 물질문명을 발달시키는 사실 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자체가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무서운 포인트이다.

성경은 무엇보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성을 강조한다. 옛날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창 6:5). 인간의 생각, 사상, 계획 등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기울어져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의 발전과 현대 문명의 업적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이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죄가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noetic effect of sin)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패했고 타락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다. 물론 인간의 머리에서 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일반은총)의 결과이다.

5. 세속화 신학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Already & Not Yet).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already & not yet)의 갈등 가운데 살아나간다. 성도들은 현재 임하신 하나님 나라 (already)를 누리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not yet)를 사모하며 산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악과 선은 현세대에 공존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며 그 때에 죄악은 궁극적으로 심판받는다.

6. 세속화 신학의 기초는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한 인본주의 사상이다. 세속화 신학은 인간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이해될 수 있고, 현대인들과 소통될 수 있는 기독교를 새롭게 설명하는 (re-statement of Christianity) 갈망은 기독교 진리와 성경을 세속화 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모든 민족, 인종에게 관련이 있고 (relevant) 적용되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듣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경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KHL0206@gmail.com

모세는 왜 유배의..

(2면에서 계속)

대중적인 기독교 상상에 따르면, 율법은 복음과 어긋난다. 천로역정에서조차도 모세는 천상의 도시로 나아가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적으로 묘사된다. 크리스천은 “아담을 향한 은밀한 마음” 때문에 모세로부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는다. 크리스천이 자비를 애원하자, 번연이 그린 모세가 말한다. “나는 자비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야.” 인간 본성의 죄악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롬 8:3). 그 점에서는 번연이 옳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성경의 모세와 전혀 다른 모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성경 속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속물의 피로 심판을 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세 자신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출 32:30-32; 민 12:13). 모세의 삶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유배와 엑소더스의 패턴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구원을 설명하는 신약성경의 패턴과 똑같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엑소더스의 메아리로 가득하다(마 2:15; 요 1:17; 히 3:5-6). 자기 백성을 새로운 탈출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유배의 삶을 선택했다.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미리 기록된 복음을 만난다. 엘리스테어 로버츠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주의 관점에서 출애굽을 이해하는 것이 야말로 적대적인 세상에서 구원 받은 자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는 유배의 삶을 기

꺼야 받아들였다. 그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이집트의 보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기로 결심했다. 거룩하신 분을 찾고 거룩한 땅에 서면서 모세는 세상의 부, 세상 관계와 단절의 복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이스라엘로부터 일종의 이방인으로 남았다. 그는 목이 곧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고(출 14:10-14; 민 20:1-5), 심지어 가족도 그를 비난하고 도발했다(민 12:1-15). 바로 이런 점에서, 모세는 사람이 된 하기로스(hagios)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구약과 신약에서 종종 “거룩하다”로도 번역되는데, 흔히 “구별된” 또는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누리는 우정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가 사랑한 사람들과도 적대 관계를 선택했

다. 모세는 기꺼이 다른 삶을 선택했고 홀로 서려고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가장 거룩하던 시절의 이스라엘보다 더 비속해지고 있다. 따라서 구별하라는 부르심은 더욱 빈번하고 긴급해질 것이다. 세상의 부와 명성, 인간관계는 종종 위태로워질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충성을 부인하거나 침묵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이 땅의 상과 하늘의 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대가를 요구하는 부르심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사는 건 아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젊은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유한 젊은 관리를 만났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을 꺼내 들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관리가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낙담한 청년은 슬픔을 가득 안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유배의 삶을 산 모세의 모범을 따른 이들도 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할리우드 각색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알게 될 또 다른 인물이다. 이 18세기 영국 정치가이자 자선사업가는 왕족의 양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젊었을 때 그는 엄청난 인격을 얻었다. 한 전기에 따르면, 젊은 윌버포스는 “재치 있고, 매력적이며, 박식하고, 웅변적이고 친절했다.” 허가 서툰 청년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낙담한 청년은 슬픔을 가득 안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유배의 삶을 산 모세의 모범을 따른 이들도 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할리우드 각색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알게 될 또 다른 인물이다. 이 18세기 영국 정치가이자 자선사업가는 왕족의 양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젊었을 때 그는 엄청난 인격을 얻었다. 한 전기에 따르면, 젊은 윌버포스는 “재치 있고, 매력적이며, 박식하고, 웅변적이고 친절했다.” 허가 서툰 청년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낙담한 청년은 슬픔을 가득 안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유배의 삶을 산 모세의 모범을 따른 이들도 있다. 윌버포스의 양심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결국 노예들의 곤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복음주의로 거듭난 이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두 가지 목적, 즉 노예무역의 억제와 도덕성의 개혁”을 제시했다는 유명한 선언을 했다. “Amazing Grace”의 가사를 쓴 전직 노예선 선장, 존 뉴턴으로부터 영적 영향을 받은 윌버포스는 영국의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313-4498, www.lbcp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청년이 배: 오후 2:00 영아예배 (잠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310)719-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1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10)325-4020, www.wjcc.org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평일), 오후 7:30(주일)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jcc.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실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버치 리저널즈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홍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분당) 시력상담: 1. 여신사역 2. 교집합 상담 여신사역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 요 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그네 교회: 오후 1:00 TE-동요부흥성(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영혼대부흥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성령을 향하는(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s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God Restores)

바벨론의 멸망(1~3절)(The Fall of Babylon)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BC 612년에 당대에 가장 강국이었던 앗수르의 성 느니웨이를 점령합니다. BC 605년에는 갈기미스(Carchemish) 전쟁(戰爭)에서 가장 강국인 애굽도 격파하였습니다. 앗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정복한 바벨론은 당시 실질적인 최강 좌장 강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엄청난 바벨론 강대국은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남 유다의 9개국이 멸망한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렘 50:1,2) 최강대국 앗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격파하고 9개 나라들을 정복한 실질적인 최강 좌장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전할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시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등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렘 50:2)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과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듯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Marduk"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렘 50:3) "바벨론"은 "메디아-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때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으로부터 짐승이 다 우왕좌왕할 것이다"입니다. 사람이 심판받으니, 동물도 함께 영향을 받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찾아내어도 찾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하였듯이, 후손들은 "출 바빌론"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렘 50:20) 사람은 죄를 짓고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엢 1: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는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렘 50:20) 죄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강하고, 난공불락의 땅처럼 보이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대국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똑 같습니다. 50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이 각각이 각각 독립하여 50개국으로 바뀌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또 5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50개의 나라로 나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여 나를 괴롭혀 왔던 모든 악한 바벨론 같은 강한 세력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맞는 "그날과 그때"임을 믿고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날과 그때"를 향하여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없다 하신다(The Lord Says There Is No Sin).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2) 다스려야 할 분노

살아가노라면 여러 이유로 분을 품고 노를 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기독교 상담자에 의하면 내담자의 반수 정도에 분노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수양회 때, 분노에 관련된 설교를 한 후 돌아가면서 각자의 경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분은 집에 문제가 생겨 어느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자체비로, 또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여 공사비 전액을 일도 끝나기 전에 지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연락이 안 되고 일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약 남편이 있는 걸 봤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며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은 식구들 간에 생긴 문제로 수년간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결혼해 본 일도 없이 어느덧 50살에 들어선 그가 허망한 미소를 띠며 말을 마쳤을 때 모두에게 측은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 어머니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작은 아이는 끊임없이 병치레를 하고 본인은 때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눈에 이상이 오는 등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타주에 살고있는 애들 고모가 오랜만에 와서 애들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 생각이 겹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핏줄을 나눈 조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는가?" 했을 때 마치 보드라운 고양이 발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나오듯 대응하는 것을 보자 그 분노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라곤 아무도 없었지만 남편쪽의 많은 식구들이 애들과 본인이 아플 때 어디에 있었냐고 허공에 소리치는 듯했습니다. 분노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며 기쁨과 건강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임을 실감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해진 부당함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한다고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면 때로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고 이는 곧 죄가 되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엢 4:26,27)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이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를 인정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격할 때 분노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 돌아볼때 용서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무조건 견디고자 한다면 우울증이나 정서적 과민 반응으로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으며,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마음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 1:20)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위에 대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분을 그리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의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시 37:8,9)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부모 인도자께서는, 분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바라보며 의지하자고 권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Toronto.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중앙교회)

살다가 보면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란 말속에는 여러 가지의 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의 의미도, 정신적 생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 생명 관리에 실패하여 초라하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명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칫 부지불식간에 영적 생명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영적인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한 문은 그 뜻을 잘 표현합니다. 생명은 귀하여 잘 관리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엄숙한 삶에 대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때에 삶이 힘겨운 이 땅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설령 생명을 끊지 아니하여도 삶의 의욕이나 의지를 갖지 아니하는 일종의 무기력한 포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소위 니트족이 많다고 합니다. 저들은 일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며 심지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포시대나 오포시대나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생명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삶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설령 주어진 삶의 내용 곧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흡족하지 못할 지라도 생명을 누리는 인생은 영광이요 은혜요 행복의 기회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분의 의도를 헤아려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사계절처럼 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옵니다. 늘 맑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어둡지도 않습니다. 늘 따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추운 겨울도 아닙니다. 인생은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천국과 같은 타임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행동하고 거침없는 인생의 고속도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침침산중의 험한 외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봄 한국 사역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 대전에서 사역 전날 제 아내와 대전 어느 유적지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길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길의 좁은 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길은 목적지로 가는 옛날의 길어가는 길이었습니.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 유적지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 하였는데 그 길이 차도가 아닌 인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 조금 더 갔었다면 자동차를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뻔했습니. 마침 그 상황을 제가 인식하고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겨우 자동차를 돌려서 왔습니.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아찔하였던 상황이 떠올랐습니. 비유컨대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힘겹고 좁은 험한 길목에

들어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직면할 때에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고 내 짐은 가벼워이리라”(마 11:28-29) 살다가 힘겨운 시간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말씀입니다. 살다가 보면 언제인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우리 주님에게로 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한 준비 연합기도회 열려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지난 8월22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세계기도센터에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주님세운교회, 갈보리선교교회 등의 교회 기도사역팀과 청교도 기도 동역자 기도팀, CBS 중보기도팀, CMF선교원 기도팀, 12개의 중보기도팀 150여명의 기도 용사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팀장 현민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미국의 심각한 위기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주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미주성시화운동의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의 격려 말씀이 있던 후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의 도전과 사회로 ‘다민족기도회를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기도운동이 확산 되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미주 성시화공동대

표인 송정명 목사는 “연합중보기도모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며 “다민족연합기도회 예비폭발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준비 위원회는 “성경을 떠난 지도자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때 미국과 세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게 될지를 우려하면서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다민족들과 함께 금식기도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2024 다민족연합 합기도대회가 오는 9월 2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SEEK HIS FACE!”를 주제로 삼고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의 부제를 걸고 열린다. 준비위원회에서는 남가주의 성도와 교회들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310)995-3936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



월드미션대학교와 한국의 성결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월드미션대학교, 한국의 성결대학교와 MOU체결

“양교의 협력 통해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것”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와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박사)는 8월 14일 (수) 월드미션대학교 스마트강의실에서 상호 협력과 유대 관계에 대한 두 대학의 의지를 담은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을 위해 성결대학교의 김상식 총장과 유현식 실용음악과 교

수가 한국에서 본교를 방문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은 “이번 WMU와의 협력이 성결대학교의 국제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고 WMU 임성진 총장은 “양교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월드미션대학교와 성결대학교는 학문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학술 자원 교환 및 시설 활용을 도모하고, 둘째, 교수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 하며, 셋째, 문화 체험 및 단기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 대학은 공동 세미나와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와 성결대학교는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상호 발전을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거짓말에 맞서 싸우자!

(3면에서 계속)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감정적 객관적 실재와 단절된 채 결정이나 신념으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서사 비진리

사실의 정확성과 상관없이 설득력 있는 스토리라인이나 단지 말이 되는 설명이라는 이유만 지니고 있는 서사 비진리는 인간이 가진 “종족 진리(Tribalistic truth)”이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속한 집단이 허용하는 한 진리라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종족”은 “내집단(in-group)” 즉 내가 속하고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그룹이다. 내집단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를 우선적으로 대하고, 유사한 그룹 정신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외집단”은 내가 속하지 않거나 동일시하지 않는 그룹이며, 내집단 구성원은 그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비판은 외부인의 눈에는 오히려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것을 작은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다.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사소한 차이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개인 관계에서 불화와 상호 조롱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집단주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단지 이 집단주의가 가진 독특성은 내집단이 외집단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면 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

3. 종족 비진리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진리란 동시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말에 반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는 진리란 주어진 시간과 장소의 규범, 신념, 권력 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종족 진리(Tribalistic truth)”이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속한 집단이 허용하는 한 진리라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종족”은 “내집단(in-group)” 즉 내가 속하고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그룹이다. 내집단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를 우선적으로 대하고, 유사한 그룹 정신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외집단”은 내가 속하지 않거나 동일시하지 않는 그룹이며, 내집단 구성원은 그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비판은 외부인의 눈에는 오히려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것을 작은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다.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사소한 차이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개인 관계에서 불화와 상호 조롱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4. 기관 비진리

거짓말과의 전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선은 우리가 “기관 비진리(Institutional Untruth)”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그룹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거나 속한 기관의 명예, 권력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을 수용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형태의 거짓은 종종 충성심이나 의무감 심지어 의로움으로써 위장하기 때문에 특히 교활하다. 기관 관련 비진리는 보통 은폐, 회색양 만들기, 역사 다시 쓰기, 그리고 협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거짓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견된다. 정부 기관, 기업, 학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와 사역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관 관련 비진리는 특별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사역 대부분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속한 기관의 평판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속한 기관을 위해 거짓을 간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유혹은 하나님의 일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너무나도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by Joe Carter, TGC

모세는 왜 유배의..

(7면에서 계속)

“노예 사업의 사악함은 너무나 거대하고, 끔찍하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내 마음은 완전한 폐지로 결정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부터 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결단코 쉬지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 그리고 그는 결단코 쉬지 않았다. 1789년부터 1805년까지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20건의 결의안과 법안을 제출했지만,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의회 세력의 법적 책략으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는 신랄한 비판과 살해 위협을 견뎌냈다. 거리에서 공격받았고, 프랑스 혁명가들과 동맹을 맺은 스파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구타하는 비밀 흑인 아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는 그리스도가 단지 육체적인 포로뿐 아니라 영적 포로도 해방하시러 오셨다고 확신했으며, 선교 활동과 성경 번역 활동도 적극 지원했다. 1833년 임종 당시, 윌리엄 윌버포스는 마침내 하원이 대영제국의 모든 노예를 해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 상급

성경 전반에 걸쳐 유배는 보통 선택이 아니라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 윌버포스, 누가복음 속 젊은 관리와 같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들은

얼마든지 평생 궁전과 의회에서 왕자 및 총리와 어깨를 맞대고 편히 살 수 있었다. 꿈이 부나 명예를 포기할 필요도 없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따르는 조롱을 참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단 두 명만이 유배의 삶을 선택했다. 모세와 윌버포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속박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등을 돌린 젊은 관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타락한 이 땅은 이상한 신들과 매혹적인 보물들로 가득하다. 우리 이웃이 숭배하는 잘못된 것(성이나 돈 등)은 사실상 세상의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갖고 누리는 것, 또는 모세, 윌버포스, 젊은 관리가 가졌던 영향력과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려면 반드시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중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만날 것이다.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 결과는 고통스럽고 값비싼 이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땅 또는 하늘 둘 중 어떤 곳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한다.

젊은 관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음을 알았다(마 19:23).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 말했다. 참되고 더 나은 구원자는 이 세상에 살

면서 자원했던 유배자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였다. 그는 단지 이집트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셨다. 더 큰 모세 예수님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실천하셨다. 왜 그랬을까? 물론 자기 백성을 사랑한 모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늘의 보상을 추구했다. 즉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극복하고 부활절 아침의 승리로 이끄는 큰 기쁨을 바라보았다(히 12:2).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십시오 이 참된 구원자는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적 탈출을 성공시켰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썩지 않는 보물로 가득 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세상의 부나 영향력, 명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모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우리도 풍성히 값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은 언제나 거룩함을 쫓는 자들을 통한 역사의 변환이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유배의 삶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가 질투할 만큼의 보상을 약속하신 분이시다.

by Shane Morris, TGC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9월 3일(화)부터 9월 5일(목)까지 3일동안 정승환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개강 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463-7163

뉴욕장로연합회,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라'는 주제로 황영송 목사(수정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를 9월 15일 오후 5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917-204-9879, 917-921-331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BBQ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는 9월 2일(월) 오전 10시 알리폰드 파크에서 동문들과 함께하는 바비큐 모임을 갖는다.
 ▲ 문의: 718-909-6467

퀸즈한인교회, Fall Family Festival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를 9월 14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 다양한 먹거리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된다.
 ▲ 문의: 이현구 목사 718-925-1329

디딤돌 아카데미, 40HourSurrender 평신도 영성수련회
 디딤돌 아카데미 평신도 교육원(대표원장 양춘길 목사)은 "화평" (마태복음 5:9)의 주제로 9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양춘길목사, 김종국목사, 박길재 목사, 김정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40HourSurrender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150불이다.
 ▲ 문의: 송성범 장로 201-280-2417

뉴욕새생명장로교회,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는 "회개와 회복 (역대하 7:14)"이라는 주제로 9월 2일(월)부터 9월 22일(주일)까지 새벽 6시 본교회에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637-1470

메시아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개강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9월 11일(수)부터 12월 11일(수)까지 메시아 평생교육원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등록마감은 9월 11일(수)까지이다.
 ▲ 문의: 703-941-4447

새생명선교회 20주년 감사음악회
 암환자를 위한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20주년 감사음악회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상철 목사)에서 9월 22일(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 문의: 심의례 전도사 718-288-2447

"왕초보 음악밴드 학교" 개강
 왕초보 음악밴드 학교(지도교수 조환곤 박사)가 뉴욕살롱교회(담임 양미림 목사)에서 9월 한달 동안 매주 화, 목 오후 2-5시에 열린다. 개설과목은 키보드,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이며 모집 대상은 찬양과 음악선교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수강료 \$50
 ▲ 문의: 뉴욕살롱교회 646-207-7525

뉴욕교협,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강사 김홍양 목사, "희년으로 자유하라" (레 25:10)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김홍양 목사(제주 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8월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희년으로 자유하라 (레 25:10)'는 주제로 2024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프라미스교회 베들레헨 성전에서 임지운 목사(어린이 할렐루야 교회)가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를 열었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뉴욕교협은 희년 할렐루야 집회를 준비했다.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명, 자녀, 모든 문제와 질병에 하나님께서 희년의 선포를 주신 것을 믿기 바라며 특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첫째 날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히,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이번 대회 집회 기간 동안 뉴

욕장로성가단(지휘 한문섭 장로), 후리성제일교회(지휘 이선경 전도사), 프라미스연합찬양대(지휘 전성진 안수집사)가 찬양했으며 딩동맹 어린이 합창단과 싱싱밴드(제주제일교회), 뉴욕권사선교협창단(지휘 양재원 교수)이 특별 찬양순서를 맡았다.

김홍양 목사는 첫날 집회에서 '희년, 하나님의 꿈을 꾸자'(창 28:10-22)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을 넘어서는 큰일을 이룬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가 변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날마다 기도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따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둘째 날 집회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5원칙 (마가복음 8:1-10)'을 주제로, 마지막 날은 '기적을 일으키는 새로운 도전 (여호수아 3:11-17)'이란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이번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통해 강사 김홍양 목사, 어린이 할렐루야대회 강사 임지운 목사, 최홍경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윤세웅 목사와 김재룡 목사(교협감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홍현숙 기자)



목회자 및 평신도를 위한 "맥체인 성경 정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교협,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 "맥체인 성경 정독 세미나"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8월 26일(월)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를 위한 "맥체인 성경 정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는 사회 임영건 목사(주안교회 담임), 이상원 목사(롱아일랜드 성결교회 담임)의 지도로 시작했다.

김홍양 목사는 "어느 날 선교 햇살 출판사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전하며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연구해 달라라는 요청으로 맥체인 성경을 읽게 되었다. 책에는 이렇듯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졌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니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성경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며 "성경 읽기와 기도에서 받은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맥체인 성경에 대해 소개하고 맥체인 통독과 정독의 특징을 설명하며, "신학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는 정독 목상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정독 목상을 통해 성경을 읽을 것"을 권장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든 순서는 김명옥 목사(선거관리위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제 38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를 마치고 사진 촬영했다

제 38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는 8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롱아일랜드 성결교회(이상원 목사 시무)에서 뉴욕실버미션학교 제 38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뉴욕실버선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최근 장례식에 참석하며, 평균 연령이 90세이며 이제 100시대를 실감했다. 장수는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순서는 김명옥 목사(선거관리위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무총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원 목사는 '증인 (행 1:3-8)'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에도 힘썼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얻고,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끝까지 말씀과 기도에도 힘써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박준열 목사(이사) 축도로 마쳤다.

뉴욕실버선교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27일(주일)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 시무)에서 감사예배 & 찬양축제를 개최한다.

뉴욕실버(시니어)미션에 관한 문의는 김경일 목사(917-963-9356), 이형근 장로(646-220-8222)에게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목) 오후 9:29특별기도대(1조~5조) 세종명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를 위한 특별기도회 (강사 부원장 이성자 사모)

2(금) 오전 사랑발 TV(이사장 권태일 목사) Interview Recording
 3(토) 오전 서울 열린교회(최상태 목사) 010-3298-8023
 5(월) 오후 NYSKC 한국광주성회 주최 :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뉴욕),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LA) 천안 성화산기도원(원장 노베드로 목사) 010-8234-0690

5(월)~7(수) 세종 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원장 피종진 목사)
 8(목) 저녁 고양시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010-4737-0691
 9(금)오후,저녁 대구 글로벌 강은숙 신유제단(원장 강은숙 목사)
 12(월)~13(화) 신대방 국제문화예술선교회(임영술 목사)
 14(수) 오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주최 : 나라사랑기도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658-9006
 15(목) 오전 서울 강남광문교회(황일일 목사) 010-9260-1091
 주최 : 지선현 광복절예배

15(목)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은 목사) 010-2391-3004
 16(금)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세계기독교교육신문방송TV)
 16(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광 목사) 010-8331-3431, 010-5603-4997
 18(주) 오후 서울 사랑발 7천기도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TV Interview Recording
 19(월) 오전 서울 사랑발선교회(권태일 목사) 010-5901-1277
 19(월)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19(월)~20(화)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21(수) 낮 저녁 영덕 등대교회(이사라 목사) 010-2531-1564
 주최 : 글로벌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의정부 호림산기도원(원장 박호식 목사, 총무 조광일 목사) 010-3129-1114
 22(목)~23(금) 노산훈련소 3천명 진중세례교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통 선교회(류성교 장로) 010-5265-1501
 24(토) 오후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5(주) 저녁 Visiting International Mission Fields
 26(월)~30(금)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07-15호 Fax. 02)4011-7770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작은 아버지
 (213)905-3874 /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남가주밀알선교단, '2024 밀알의 밤' 개최

10월4일(금) - 6일(주일) 싱어송라이터 하림 초청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는 매년 가을 '밀알의 밤'을 개최해 힘든 이민국 생활에 지쳐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작은 위로와 휴식을 안겨주며,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 주고 있다. 금년 밀알의 밤은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사흘 동안 '위로 (이사야서 40:1)'란 주제로, 한국의 유명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공연 기획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림'을 메인 게스트로 초청해 멋진 공연과 함께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2024 밀알의 밤 공식 포스터

지난 1996년 1월,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팝 록 음악 가수로 데뷔한 하림은 'VEN(벤)'이란 3인조 남성 그룹의 일원으로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선배 가수 윤종신의 도움으로 2001년 12월 1집 앨범 《다중인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출국', '난치병'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 주옥같은 노래를 히트시켰고, 현재는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공연 기획자로 '기타포아프리카', '국경없는 음악회'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리스천으로 서울 사랑의교회 등 여러 교회에 초청받아 찬양, 간증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CCM 가수들의 음반에 피쳐링을 해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하림의 아름답고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 우리 한인교포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공연일정과 장소는 10월4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 5일(토)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 6일(주일) 오후 6시 엘바인 온누리교회이며 티켓 도네이션은 \$20이다. ▲ 문의: (562)229-0001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무엇보다 하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크



KCMUSA주최 쇼츠 영상 제작 세미나에서 백승원 Blancfoto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KCMUSA 설교 쇼츠 공모작 시상식 및 쇼츠 영상 제작 세미나

쇼츠공모전 우수상에 김도일 세계등대교회 목사

KCMUSA(이사장 민종기 목사)는 제1회 KCMUSA 설교 쇼츠 공모작 시상식 및 목회자를 위한 설교 쇼츠 영상 제작 세미나를 "디지털 시대의 복음전파 전략"이라는 주제로 8월 26일(월) 오전 10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효용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학준 팀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백승원 Blancfoto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백승원 대표는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쇼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라며 "지금 세대는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온라인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라며 "예배 설교는 매주 같은 시간에 업로드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유튜브 버들과 달리 목회자는 한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유튜브 쇼츠는 1분 미만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교회

에서 설교 쇼츠 영상은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편집하는 것이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분 분량으로 요약할 설교내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한 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에 설교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4K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DJI 오즈모 포켓3, 캠코더, 미러리스 카메라 등 어떠한 카메라로도 훌륭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 편집방법과 업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난 7월1일부터 31일까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성도(고전 6:1-3)'라는 주제로 열린 쇼츠공모전 시상식을 가졌으며 김도일 목사(세계등대교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다음은 제1회 KCMUSA 설교 쇼츠 공모작 수상자 명단이다. △우수상(상금 500달러): 김도일 목사(세계등대교회), △참가상(각 상금 100달러): 신다니엘 목사, 권성연 목사(미라클포인트교회), 김석훈 목사(산타페한인교회) <박준호 기자>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는 정신건강 회의를 개최했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지역사회 한인리더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의 개최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제4지구 동료지원센터와 유나이티드 멘탈헬스 프로모터 프로그램은 8월22일(목) 오전 10시 DMH 본부 건물 9층 테라스 레벨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한인리더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

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와 주민들의 웰빙을 돕기 위해 DMH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퍼바이저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신건강 컨퍼런스에는 타샤 스위트(Tosha Sweet) 정신건강국 매니저와 윤희완 수퍼바이저를 비롯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여러 단계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나눴다. 또한 조현병 치료를 돕는 'CARE Court'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 'ECM(enhanced care management)',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PRC(Peer Resource Center) 동료지원센터, 솔트 등 8개 단체가 참여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안 LA총영사를 비롯하여 한인커뮤니티에서 한인가정상담소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또한 미주장신대학교, 월드미선대학교 등 상담학과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한인 목사회 8월 정기 모임

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 모임에 참석한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가 그 동안의 사역과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8월 정기 예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좋은마을교회 창립 40주년 축하기념예배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는 창립 40주년 축하기념예배를 9월8일(주일) 오후 2시에 갖는다. ▲ 문의: (714)646-9259

웅기장이 찬양단 미주 투어

웅기장이 찬양단 미주투어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9월 1일(주일) 오전 11시: 갈보리 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 7일(주일) 오후 7시: 미라클랜드 침례교회(담임 백동진 목사), 13일(금) 오후 7시: 나성금관교회(담임 김배선 목사), 15일(주일) 오전 11시: 연합선교교회(담임 김 목사) & 오후 3시 비전라이프교회(3시.LA), 29일(주일) 오전 11시: 갈릴리 선교교회(담임 황천영 목사) ▲ 문의: (213)407-4569

샌디에고 교회협의회 부흥회

샌디에고 교회협의회는 '동행, 제자리 걸음을 끝내는 여정(골 2:6-7)'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9월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6일(금) 오후 7시30분, 7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8일(주일) 오후 2시30분 ▲ 문의: (858)278-3210

기도원 or 별장으로 최적

산속 아름다운 동네에 소재한 기도원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샌버나디노 국립 공원에 잇기에 폭포가 있고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집. LA K-Town에서 1시간 거리로 주말 별장, 기도원, 소규모 수련회 장소로 적합. ▲ 문의: (213)718-8582



씨씨 라이브콘서트를 마치고 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씨씨 라이브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무대예술인그룹 시션(대표 클라라신)의 여성보컬그룹 씨씨(SEASSI)의 라이브콘서트가 8월24일(토) 오후 8시 토렌스 지역에 위치한 성프란시스 한인천주교회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미나(김민형), 지나(박수진), 레나(임수연), 한나(김하나)로 구성된 그룹 'SEASSI'가 대중들에게 익숙한 뮤지컬 곡들을 비롯하여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으며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씨씨의 노래를 함께 따라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공연을 마친 후 리더 미나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합내서 공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꿈꾸는 교회 이전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꿈꾸는 교회 이전감사예배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로 쓰신 하나님"

꿈꾸는교회(담임 송희진 목사) 이전감사예배가 8월25일(주일) 오후 3시 열렸다. 송희진 목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해주셨다. 그것에 감사하여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송 목사는 "꿈꾸는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 우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 자신을 볼 때 순종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나가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서재영 목사(복음총만교회 담임)

대표기도, 이병진 형제 특별찬양, 윤석길 목사(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출4:1-4)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윤석길 목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은 모세였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가장 나약한 모습이었다"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지팡이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로 쓰셨다"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심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꿈꾸는교회 청년들의 특송이 있었으며 변명해 교수(아주사파시픽대학교)의 축사에 이어 송희진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윤석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베델교회 셀부흥회에서 강민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베델교회 2024년 하반기 셀 부흥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2024년 하반기 셀 부흥회를 "셀과 함께라면 It doesn't matter"이라는 주제로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강민수 목사(레이크뷰연합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25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 마지막 날 부흥회에서 강민수 목사가 '성경적 공동체의 재생산(요 15: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민수 목사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가르치셨다. 포도나무의 가치가 그 나무의 키와 두께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있듯이 우리 삶의 가치도 우리의 부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에 달려있다. 여러 번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록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가장 보람된 삶을 산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영원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전

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셋째 성도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김한요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한인 목사회 8월 정기 모임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 8월 정기 모임이 지난 8월 14일(수) 오전 8시에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에서 열렸다. 안병권 목사(가나교회)의 사회로 시작 된 예배에서는 이항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가 기도 한 뒤, 박성규 목사가 "위대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나는 이제 평생 이루어왔던 나의 목회사역을 마치려 마무리를 예정이다. 그러나 나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목사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사역



AI가 몰고 올 교회 변화, “영적 분별성 민감성 잃지 말아야”

AI시대 속 크리스천, 경청 묵상 교계 중요

한국교회가 AI 시대에 마주할 현실을 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장영하 영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26일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신원하 원장) 여름 콘퍼런스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5월 영국 브라이튼 서식스 대학 강의실에는 인공지능(AI) 로봇이 대학교수의 질문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교육 행사에 영국 전역 대학교수, 교육 전문가 300여명이 AI 로봇 소피아와 철학적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소피아와 함께 지속가능성 평등 상

상력 종교 AI 미래 등의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경기도 안양 안양일심교회(김홍석 목사)에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의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AI가 보편화됐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목회자들은 ‘인공지능이 만들 교회의 풍경’을 주제로 열린 여름 콘퍼런스에서 “챗GPT를 활용해 설교를 준비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들 3명 중 2명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김대혁 총신대 설교학 교수는 이토록 빠르게 AI가 확산하는 이유를 개인 접근성 용이, 성능의 차별성, 활용 범위의 확장성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교회에 AI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AI 설교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며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를 설교 준비에 사용할 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거나 목회자 설교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챗GPT를 설교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활용 전 ‘설교다움’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과정”이라며 “설교 작성함에 있어 편의성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장 교수는 “인간을 능가해 사고하는 AI가 등장하면서 ‘기계자 자율의지 의식 등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며 “AI시대에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경청 묵상 교제를 제시했다. 장 교수 “AI시대의 인간 언어는 결과론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한다”며 “약함이 감함되고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고 감사하는 삶이 인간답게 만드는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기장서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

800명 넘어, 내달 정기총회 전까지 1000명

한국기독교교장교회(기장·총회 장 전상건 목사)에서 목회자와 장로를 대상으로 한 ‘반동성애·반동성혼’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총회 전까지 10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 8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단으로 꼽히는 기장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기장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위원장 김창환 목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명 동참자가 836명(목사 262명, 장로 574명)으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서명운동을 통해 “과

거의 기장은 자랑스러운 교단이었으며,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바탕으로 민주화 평화 통일 생명운동 등 사회선교를 지향하며 걸어왔다”면서 “(하지만) 오늘날엔 퀴어신학과 동성애를 옹호하고 퀴어 축복식을 거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교회와 상반되는 행보를 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동성혼) 반대 서명운동을 기장의 정통성을 바로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계기로 기장이 정도로 들어 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서명운동을 통해 기장 총회의 공식적인 동성애 반대

선언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장 교단 내부의 이 같은 행보는 교단 안팎에 특별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기장은 한국교계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을 지닌 교단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장은 타 교단에서 이단신학으로 분류되는 ‘퀴어신학’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고, 퀴어행사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펼칠 정도로 ‘진동성애’ 행보를 드러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08회 총회에서는 기장의 미래선교 방향을 담은 ‘제7문서’에 ‘성평등’ ‘성적지향’ 등 동성애 옹호성 용어가 포함돼 총대들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장은 이후 실행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용어를 문서에서 삭제했다. 대책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는 “소수 친동성애 목회자로 인해 기장과 소속 목회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오해받는 상황이 안타까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기장 헌법과 신학 어디에도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목이 없다. 기장이 과거 자랑스러웠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총회 개최 전에 동참 서명자 1000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는 제109회 총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자 명단을 총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美 용사들 초청 ‘보은의 무대’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합창단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미국 워싱턴DC의 존F케네디 센터에서 한국 가곡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객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71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23일 극동방송(이사장 김창환 목사)은 전국 어린이 합창단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201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나라사랑 평

화음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광복 79주년과 한국전쟁 정전 71주년을 기념해 기획했다. 음악회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환영 인사와 캐린 펜스 여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음악회는 자유 평화 번영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합창단은 양국의 우정을 기리며 전통 부채춤과 꼭

두각시 춤을 포함한 6개의 테마 공연을 선보였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과정과 광복을 다룬 퍼포먼스, 탈북민과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는 공연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참전용사 제너럴 젠킨(94)씨는 “내 평생 이렇게 멋진 공연은 처음”이라며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를 기억해 줘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연 전날 김창환 목사와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추모의 벽’을 방문해 헌화식을 진행했다. 극동방송은 2021년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3억원을 모금해 기탁했다. 이듬해 완공된 추모의 벽에는 미군,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등 총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헌화식에서는 양국 국가 제창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졌고 방문객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창환 목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며 “재미교포들과 다음세대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회자, 선포한 말씀 삶으로 입증해야”

2024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맥아더(85)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목사는 앞장서서 시대 변화에 따른 복음, 목회의 변질과 싸워 왔다. 그는 실용주의 위험을 간파하고 세상을 닦아가는 교회, 추문이 끊이지 않는 목회자들을 향해 계속 경고했다. 맥아더 목사는 1969년 450여명이었던 지금의 교회들

말은 이후 현재 82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한평생 교회의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온 맥아더 목사의 목회철학과 사역을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추보는 ‘2024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가 26일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구로구 예수비전교회(도지원 목사)에서 열렸다. 콘퍼런스를 12년째 이끌어온

도지원 목사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들의 설교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맥아더 목사는 ‘목회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삶으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을 좇는 대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도 목사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요즘 교회 상담 사역에서도 ‘성경적 상담’이 아닌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경계했다. 도 목사는 “맥아더 목사는 많은 이들이 습관적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덕적 교정보다는 의학적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맥아더 목사는 그 원인을 성경적 설교의 쇠퇴에서 찾으며 교회가 상담사역을 훈련된 심리치료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영적 은사를 갖춘 성도의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처서 매직’ 없었다...폭염 취약 계층 품는 교계

노인 노숙인 환대하는 교계 여름 사역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處暑) 이후에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한국교회 여름 사역이 주목받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잦아지면서 무더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계 사역의 확장도 요청됐다.

25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084명으로 집계됐다. 집체 전날보다 22명 늘어난 수치인데, 지난해(2818명)보다 17% 늘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질병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2018년(4526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환자 10명 중 3명(31.3%)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교계 역시 온열 질환 예방 사역을 이어가

고 있다. 교회들은 폭염 취약 계층인 노인 노숙인 등에 나눔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천 해인교회(이준모 목사)는 실버자원봉사조합 ‘인천내일여는집’을 12시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방문자에게 식사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한글 교실, 노래 교실 등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서울 동원교회(이기영 목사)와 서울 산돌중앙교회(김연정 목사)는 교회 카페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회 역시 교인 후원으로 음료와 간식을 무료로 내어준다. 지역 어르신에게 주기적으로 여름 음식을 대접하는 교회 사역도 눈길을 끈다. 서울 월드컵교회(김영철 목사)는 2009년부터 여름마다 지역 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행사를 열고 있다. 식사를 계기로 인연이 된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 섬김을 이어가기도 한다. 서울 꽃재교회(김성복 목사)는 처서를 앞둔 지난 21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식사와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교계는 거리에서 불볕더위

와 사투를 벌이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나눔의 손길을 뻗었다. 사단법인 나누미(설립자 박종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광장에서 노숙인에게 ‘여름나기 배낭’ 400개를 전달했다. 배낭엔 새 옷과 속옷 칫솔 삼푸 등이 담겼다. 이날 배낭은 나누미 원장 김혜연 목사가 선교단체 슈퍼리어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 전액과 백석총회 측의 일부 후원으로 마련됐다.

한국구세군(사령관 장만희)이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과 함께 펼치는 ‘해외 어린이 심장병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어린이를 최근 만났다.

김병윤 구세군 서기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그리고 김우민 KB금융그룹 후원 수영

선생님 꿈꾸는 캄보디아 아이... 구세군, 1000명 어린이 심장병 고쳤다

선수 등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 중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어린이 송 씨니양을 만났다. 이날은 송 씨니양이 수술을 받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아이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올라 친구들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수술을 받고 건강해져서 친구들과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꿈을 향해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송 씨니양은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밝혔다.

구세군은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몽골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심장병 아동 98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올 상반기부터는 해외 저소득 계층 아동의 심장병 수술 지원과 1:1 결연 후원을 통한 아동 생계·교육 지원인 ‘K-Heart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교의 창 (24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의 상관관계

21세기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차세대가 이끌어야 할 헌신 된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을 잘 배양할 수 있을까? 그 방편 중 하나는 모달리티(Modality)인 지역교회와 소달리티(Sodality)인 학생 선교단체가 유기적인 소통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차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라는 두 개의 조직체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모달리티는 자연이나 혈연으로 구성된 자연적인 조직을 말한다. 이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조건은 크지 않다. 이 조직은 사람

선교단체의 뿌리 모달리티로서 교회와 소달리티로서 학생 선교단체의 관계는 이해도에 따라 그 무게중심이 다르다. 일반적인 관점은 선교단체를 가리켜 “교회의 병행단체 (Para-Church Organizations)”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루뎀 (Grudem, W.A.)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는 마

다. 교회는 모달리티로서 하나님의 인유 구속을 성취해가는 중심기관이요 원줄기임에 틀림없다. 이에 반해 선교단체는 교회의 위임을 받아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해 파생된 기관이다. 그 차이는 신학과 신앙에 있지 않고 단지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두 구조의 상호 연관성

역사적으로 모달리티는 소달리티를 없애 버리는 경향이 있고, 소달리티는 점차 그 구조나 성향에 있어서 모달리티처럼 되려는 관성이 있다. 중력이 전통 교회에 있다는 말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두 구조의 기능이 이렇게 다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개신교도들 간에는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절한 관계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그는 해석하기를 모달리티로서 교회조직은 매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구조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달리티” 구조 외에 “소달리티”라는 또 다른 구조를 통해 일하셨음을 강

활을 강조하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들은 당시 지역교회에 눈을 뜨지 못한 대학복음화를 위해 나름대로 공헌을 했다. 이에 반해 교회들은 주로 부흥회를 일상화하며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학생들이 양 구조 속에 발을 딛고 왕래하므로 발생했다. 속된 말로 사람 뺨기 경쟁이었다. 단체 간사들은 대학생들을 제자양육 차원에서 강한 훈련을 시켰고 많은 헌신을 요구했다. 반면에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 청년이 주일 날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로써 두 구조의 담당 사역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때 가장 어려움을 당한 자는 당사자인 학생이었다. 다행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의식있는 사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선한 방향으로 노력을 시도해 왔다.

건설적 대안

이제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는 “대학선교”라는 넓은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며 긴밀한 유대

회는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킬만한 전문성이나 여력이 없다. 실제 교회에 온 대다수 대학생들은 훈련보다 교회 봉사하기에 급급하다. 한참 배우고 연단 받아야 할 때 성장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다. 이는 그들 당사자는 물론 교회 차원에서도 손해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순간 얻지만, 일꾼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다. 이에 교회는 거시적 관점에서 저들이 차세대를 이끌 재목이 되도록 안배해야 한다. 그 방안은 지역교회가 청년들의 양육훈련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학생 선교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맺음 말

Modality로서 지역교회와 Sodality로서 학생 선교단체는 지상과업을 이루기 위한 연합체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기능이 심분 발휘되도록 부족하며 함께 가야 한다. 교회 배경이 없는 선교단체들을 힘을 쓸 수가 없다. 반대로 선교단체의 역

Sodality와 Modality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영적 기관이다. 두 구조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교회 가운데 두 구조 속의 리더십은 서로 반복하였다. 인정, 연합, 도움, 상상하기보다 비판, 긴장, 갈등, 경쟁을 한 부분이 많았다.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교회와 학생 선교기관 간의 이해도가 넓어졌다. 좋은 동역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단체들은 교회론에 있어 폐쇄적이며 지역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학선교 기관들을 곱지않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두 구조의 기능은 무엇이며 상생은 가능한가? 이에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이나 막연한 편견보다는 선교 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심의 관계 지향적이다. 대체로 다양성, 자율성, 존재를 강조, 안정 지향, 생물학적인 성장, 낮은 헌신 등이다. 이를테면 유대인의 회당이나 교회 같은 조직체를 말한다. 모달리티 지도자형은 통제와 보수, 조화와 일치를 우선으로 한다. 소달리티는 인위적 요소가 강하다. 주로 어떤 특정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로서 목표 지향적이다. 여기의 특징은 단일성, 과업 지향, 일을 강조, 2차 결단에 의한 성장, 높은 헌신 등이다. 정치적 과당이나 서클, 학생 선교단체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회원들에 대한 특수한 자격조건이 요구된다. 소달리티 지도자형은 역동성, 창의성, 비전과 도전 등이다.

치 선교단체가 교회와 병행 (Beside)하므로 교회 밖에 있는 (Outside of) 것이어서 서로 별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영국교회에서는 선교단체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전도의 팔 (Evangelistic Arms)” 노릇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표현은 신학적 논쟁을 거쳐 영국 학원선교 연합단체인 UCCF문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교회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대학 선교단체는 결코 캠퍼스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의 부속 기관이 아니다. 이는 엄연히 독립된 구조이면서도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영적 조직체이

조한다. 그는 이 두 구조가 모두 정당한 것이며 대 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등한 관계로 서로 공존하며 유기적 협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대립된 두 구조 속의 역사

한국교회는 1960-80년대에 걸쳐 급성장하였다. 이때에 대학선교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두 구조 속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게 갈등하며 서로 비판해 왔다. 선교단체들을 제자 훈련이란 기치 아래 공동체 생

속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나아가 선교단체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학복협과 코스타 대표를 역임했던 이승장 목사는 “그 방편으로 지역교회가 하는 사역을 선교단체가 백화점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교회는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더욱 전문적이고 특수한 사역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며 진화해 가야 한다. 참고로 선교한국이나 어바나 선교대회 같은 연합운동이나 선교학교, 기도훈련 세미나, 한시적 양육 프로그램 등 많은 사역을 얼마든지 고안해 낼 수 있다. 한편 교

회를 배경하고 Modality적 교회가 Sodality적 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다.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세속적 논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소아병적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연합된 대안을 펼칠 때가 되었다. 그 핵심은 차세대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 뿌리를 두고 전 문단체에서 훈련받도록 피차 배려함이 윈윈(Win-Win)의 방편이다. “뚝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엡 4:4).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향

34강 나오미, 룯 그리고 보아스 (2)(룯기 1-4장)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나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나오미가 역시 과부인 며느리 룯과 함께 돌아오니 나오미를 알아본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여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룯 1:20,21)라고 고백합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며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

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가(요 1:35-42) 떠나고서 다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졌을 때(눅 5:1-8) 했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후에 나오미는 룯에게 보아스가 베풀 은혜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죽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룯 2:20).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와 룯의 가나안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룯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홀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데 마침 추수 때입니다(룯 2:23). 그리고 성경은 룯이 '우연히' 찾아온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

스에게 속한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룯을 보았다고 합니다(룯 2:1-4). 모든 것이 '우연히', '마침'과 같이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큰 그림 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암행도, 그리고 나오미와 룯의 '돌아옴'도 다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룯이 일하고 있는 밭에 와서 룯에 대한 평판을 들은 보아스는 룯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줍니다(룯 2:8,9). 첫째, 보아스는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과부인 룯을 '내 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아스는 룯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셋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

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넷째,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에 온 것을 마실지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식사의 자리에 룯을 초대하여 함께먹고(룯 2:14) 더 풍성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룯 2:15-17).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돌아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와 룯이 돌아올 시점을 아시고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룯이 가져온 곡식

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기대 이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룯에게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룯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룯 2:19)고 하자 '그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룯 2:20)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룯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고 룯도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아스는 성경의 주인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여 세상에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과부 두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과부에게다가 이방인인 룯을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과 같이(민 12:1) 솔로몬이 사랑한 솔람미 여인과 같이(아가 8)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룯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역시 이방 여인으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을 살린 가나안

땅 여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마 1:5).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대로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룯 2:21,22). 그리고 나오미는 룯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삿 3:1)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룯의 배우자를 찾아 주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신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룯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룯 3:5,6). 룯은 추수의 잔치 후 취한 보아스가 누웠을 때 가만히 그의 밭치 이빨을 들고 눕고(룯 3:7) 룯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퍼 당신의 여중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룯 3:9)라고 하는데 뜻은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허락하심 (눅 22:31-34) 찬 214장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지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탄이 청하여 베드로를 시험하고자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청한 것을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하게 하신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본인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악한 영이 공격할 때 그는 무너진다. 세 번 무너진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다. 악한 영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사는 영적 실상을 보며 살아야 한다.

화 마지막 기도의 시간 (눅 22:40-46) 찬 252장

주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신다. 오늘 밤에 잡하실 것을 아신다. 유다가 벌써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났다.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신이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뜻은 죄인을 구하시는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이다. 어린 양으로서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죄인을 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거룩한 제물이 드림이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 그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내신다.

수 잡히시던 밤 (눅 22:47-53) 찬 254장

그 밤에 가롯 유다가 무리와 함께 앞장서서 온다. 주님에게 가까이 와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자 할 때 네가 인자를 파느냐 하신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칼로 치지만 주님께서 참으라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오로지 악한 생각 안에서 저들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에 순종하시는 것이다. 죽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목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눅 23:1-4) 찬 260장

우리는 죄의 정체를 보아야 한다. 죄악 가운데 악한 영이 일한다. 배후에 주인으로 일하는 정체를 알아야 한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죄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를 보며 파악하여야 한다. 고발 내용이 자기들의 주장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사건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정하여 두고 이루어 가는 것이다. 악한 영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저들의 주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인간은 사단의 중심을 알 수 없다. 단지 충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충동을 따라 사단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지만 죄가 빌라도를 협박하자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만다.

금 사단의 몸부림 (눅 23:11-25) 찬 290장

하나님의 막으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대중의 소리를 통하여 죄가 이기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이 승리하며 함정에 넘어지고 말았다. 악이 이기면 하나님의 형벌을 자정하는 것만 남을 뿐이다. 사단은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악하게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정의와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보인다. 아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멀어지면 죄가 승리하고 멸망이 이기며 불행이 이기고 마침내 형벌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면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며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자.

토 하나님께로 가는 길 (눅 23:34-35) 찬 259장

저들은 깨닫지 못한다. 영적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알 수 없다. 죄 안에서 죄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죄의 삶은 멸망뿐이다. 영적 어둠 안에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믿고 누리고 사는 자요. 죄의 종이다. 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죄의 형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강도가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

로가 아닌 전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지성소 휘장을 찢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에게 임하는 문이 열렸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전적 은혜로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교회음악 이야기(64)



윤임상 목사
윌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개신교(Protestant)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Requiem)에 대한 이해 (2)

“브람스(Johannes Brahms)의 독일 레퀴엠을 중심으로”

2. 일반적 레퀴엠에 대한 이해

1) 근원

레퀴엠(Requiem)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어 고레고리안 단선율로 불리다가 15세 초 중세 후반에 다성음악 양식으로 만들어지며 서양 음악 발전에 두드러지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 레퀴엠을 다성음악으로 만든 최초의 작곡가는 기욤 뒤파이(Guillaume Du Fay, 1397-1474)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현존하지 않고 그 뒤를 이어 만들어진 오케겔(Johannes Ockeghem, 1420-1407)의 레퀴엠이 최초의 다성음악으로 남아있다. 이어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 or 1526-1594)로부터 오늘날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이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작곡가들은 가톨릭 종교에 심취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히 종교적 신념이 없더라도 레퀴엠을 자신의 레퍼토리로 만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레퀴엠 가사는 그 배경이 되는 의식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제공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레퀴엠을 작곡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상의 슬픔과 분노, 미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음악에 담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2) 대표적 작품들

레퀴엠 장르의 대표적 작품들 가운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작품들을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첫 번째는 가사의 극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대곡의 작품을 만든 것은 고전 시대 모차르트(W.A. Mozart, 1756-1792)의 레퀴엠 (Requiem in D minor, K. 626) 낭만 시대의 헥터 베를리오즈(Hector Berrios, 1803-1869)의 레퀴엠(Grande Messe des Morts Op.5)과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레퀴엠 (Messa da Requiem Op.48)를 들 수 있다.

(1) 모차르트(W.A. Mozart, 1756-1792)의 레퀴엠 (Requiem in D minor, K. 626)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쓰게 되었던 동기는 1791년 그의 생애 마지막 해의 일이다. 그가 마지막 오페라 마직(The Magic Flute)을 끝낼 무렵인 그해 7월, 어느 낯선 사람이 작곡을 의뢰(프란츠 폰 발제크 백작, Count Franz von Walsegg)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발제크 백작의 부인이 그해 2월 20세의

짧은 생을 살다 마감하게 되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발제크 백작이 대리인을 시켜 모차르트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 하던 모차르트는 선뜻 그 제의에 승낙하였지만, 그해 오페라 마술피리가 초연된 9월 30일 이후가 되어서야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병상에 눕게 되어 12월 5일 생을 마감하면서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그의 제자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가 스승의 스케치를 이어받아 완성하였고 이듬해인 1792년 2월 의뢰자에게 전달, 발제크 백작의 아내인 안나(Anna)가 사후 1년 뒤인 1792년 2월 초연하게 되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다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작품을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레퀴엠이 되었다.

(2) 헥토르 베를리오즈(Hector Berrios, 1803-1869)의 레퀴엠(Grande Messe des Morts Op.5)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1830년 7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식전에서 폭탄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로 사용하기 위해 1837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아드리앵 드 가스파레(Adrien de Gaspari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가 위촉, 1837년 완성된 작품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그 해 7월위령제에 연주 되지 못하고 12월 5일 담레몽 장군과 콘스탄틴 공성전에서 전사한 병사들(General Damrémont and the soldiers)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초연되었다.

이 곡은 대규모 음악 구성(200명 이상 합창, 4개의 오케스트라, - 8쌍 팀파니)으로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국가적 특별한 행사에만 어울린다. 가사의 종교적 의미보다 가사의 음악적 분위기를 강조한다. 거대한 합창과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의 색채감과 웅장함이 있다.

(3)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레퀴엠(Messa da Requiem Op. 48)

베르디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이탈리아 민족시인 만쥬니(Alessandro Manzoni)가 1873년 5월 죽게 되자 그해 6월 파리로 건너가 바로 작곡에 전념하게 되어 이듬해인 1874년 5월, 1주기 추모식에서 초연을 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의 음악으로 작품 전면에 흐르는 음악적 감동은 모든 것을 수용한 거대한 종교음악의 형상을 보여준다. 특히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진노의 날”은 절규에 가까운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대화는 가위 환상적이다. To be continued.

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화장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91. 똑똑한 부부싸움 십계명

부부싸움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부싸움도 잘만 하면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싸움 후에 양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싸우지 않는 부부는 오히려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갈등 많은 부부가 생존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개성과 장단점을 배워 나가는 데 싸움은 가장 좋은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되, 서로 상처

싸움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맞다툼, 바가지, 갈등과 분쟁, 싸움도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1. 스포츠 경기처럼 규칙을 정하라.

부부싸움도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룰이 필요합니다. 가령 부부싸움을 할 시간과 장소, 또 싸움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아도 좋고, 상대의 가족(시댁, 처가)

하는 화법을 말합니다. 나는~하라는 식으로 나의 느낌, 생각, 소망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맨날 밖으로만 쏘다녀!라는 말보다도, 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면, 상대의 방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공소시효를 정하라.

지금 닦친 일을 해결하기도 벅찬데, 한참 전에 지나간 일까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부부싸움의 링은 사방 1미터 내외, 싸움하다가 다른 방으로 가버린다든지 집을 뛰쳐나가 친정으로 가버리는 등의 일은 반칙입니다.

7. 타임아웃을 선언하라.

감정이 격해지면 타임아웃을 부르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울컥하는 순간을 못 참으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더러운 싸움을 피하라.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혼하자!'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거나, 외모나 성적 능력을 비하하는 말,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싸운 후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복수를 하는 것도 모두 더러운 싸움에 속합니다.

9. 치사한 문제라도 일단 싸워라.

이런 일로 싸운다면 쫄쫄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말고 불만이 있으면 일단 쏟아 놓습니다. 치사하다고 회피하면, 조금씩 감정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불만은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해 수습이 힘들어집니다.

10.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먼저 사과!)

눈 꼭 감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거나, 가볍게 포옹하며 싸운 것을 회회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장점을 쪽지에 적어 넌 지시 건네는 것도 좋은 마무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날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동부후이수이마오종족

▲ 인구
약 14,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4.5%, 무교 5%, 복음화율 0.5%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천년동안 여러 지역을 점령한 마오족의 디아스포라이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구이저우성 북서부의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종족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다. 반면 동부 후이수이 마오족과 같이 구이저우성 남부에 살던 마오족들은 간과되었다. 소수의 동부 후이수이 마오족 신자가 있을 수 있으나 활기찬 신앙 공동체는 거의 없어 보인다.

▲ 기도제목

1. 복음의 불모지인 동부 후이수이 마오족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2. 동부 후이수이 마오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를 주지 않는 대화기술을 익히면 오히려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낯선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집에서 서로 부딪치며 살다 보면 부부싸움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속으로 갈등이 쌓이는 부부보다도 정말로 잘 싸우는 부부가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에게 긴장(Tention)과 이완(Relax)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교체되어 일어날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로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지나친 해와 무사안일, 내태한 이완의 삶이 장기화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부

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해도 좋습니다. 단 일단 정해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훌륭한 협상가가 되어라.

부부싸움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승자가 다른 한 명은 패자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은 반드시 감정의 양금을 남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도 두 사람 다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 게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3. I-Message를 활용하라.

I-Message란 '나'를 주어로

지 들춰내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 문제만 놓고 얘기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공소시효를 정하되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5. 관중을 두지마라.

부모나 친구, 자녀 등 제 3자를 싸움에 끌어들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는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아이 앞에서 싸웠다면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과정까지 모두 보여주도록 합니다.

6. 1미터의 법칙을 지켜라.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 Step 2: 주문하기
- ▶ Step 3: 시안확인/수정
-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교만의 옷을 벗고

사람은 누구나 얼마간 높아 지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과 자기가 제일이라는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표현된다면 별로 크게 문제일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교양이 있고, 그런 감정이나 욕망을 자기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욕망에 자신이 지배당하거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사로잡혀 이른바 '교만'이라는 자리에 군림하여 앉게 되면 문제가 된다. 구조적 권력형의 교만과 심리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정신적 교만, 그리고 종교적 위선의 교만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결정적인 오만심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을 가장 무서운 악마로 만들어 버리며, 심하면 자신의 어떤 추악한 행위라도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키는 죄악까지 범하게 한다.

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화려한 대장군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교만으로 치장된 자신의 권위에 우쭐거리고 다녔으나, 밤에 집에 들어와 유니폼을 벗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것이 그를 괴롭혔다. 수많은 낮과 밤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로 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센병의 치유를 요청했다.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명령했다. 나아만은 몹시도 불쾌했다. 엘



끓고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위의 간청과 자기 한센병의 심각성 때문에 할 수

처럼 구불구불 흐르고 있다. 물이 별로 깊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못한 강이라기보다는 시내라 함이 좋을 것 같은 별

아야 했다. 빛나는 별이 붙어 있는 모자를 벗고, 위풍당당한 군화를 벗어야 했다.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웃옷을 벗

풍당당하던 대장군의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병든 몸을 가진 한 인간이 요단강 강가에 떨고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다. 아무리 잘 났다고 큰 소리치고 떠들어도, 권력을 휘두르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지배해도, 학력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군림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강가에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면 초라한 모습밖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게 된다. 요단강 강가에 옷이 벗겨져 세워진 나아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나는 심각한 한센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만일 각종 죄악의 더러운 한센병에 걸려 있다면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잠가 목욕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왕하 5:14)

나아만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떨리는 발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그리고 몸을 물에 잠겼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꾸준히 일곱 번이나 몸을 잠기며 씻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다.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보고 그는 감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sjkcdc@hanmail.net

수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이 이러한 교만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센병 환자였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군대 장관이라는 찬란한 유니폼 뒤에 숨겨진 그의 몸뚱이는 천형의 악질적인 병에 의

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문안하고 자신의 상처를 만져 주며 간절히 기도라도 할 줄로 알았는데 이 무슨 푸대접이라는 말인가? 자기의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과 바르셀강은 요단강보다 얼마나 더

없이 요단강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요단강은 “내려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강으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에 이르기까지 약 96km 정도 뱀

로 불일 없는 강이다. 나아만은 요단강 강가에 섰다. 나아만은 먼저 타고 온 말 위에서 내려야 했다. 그리고 대장군의 제복을 벗어야 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위엄을 자랑하는 장검의 띠를 풀어내려 놓

고, 금줄로 수놓은 바지도 벗어야 했다. 그리고 속옷도 모두 벗어야 했다. 드디어 나타난 것은 한센병으로 하얗게 색어 문드러지고 파리하게 별빛 떨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위

베드로 진서 28

무서운 말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작년에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과 함께 왜 이러지 했는데 그 후 한두 번 어지럽다고 느껴 결국 의사를 만났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은 제발 의사를 만나지 말라면서 만나면 오히려 병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했지만 만났다. 전문의는 내 증세를 듣고 몇 가지의 경우를 말씀했다. 귀의 이상이나 뇌로 피를 보내는 경동맥에 문제가 아니면 빈혈이나 고혈압의 경우도 있으

니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 피검사와 심장 검사의 날을 예약하고 기다리면서 늘 하던 대로 아침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저녁에는 맨손 체조를 했다. 그러면서 운동량을 조금 늘렸다. 예약한 날이 되어 먼저 심장을 울트라 사운드로 하고 심장에 대한 심전도 검사도 했다. 심여 년 전에 한 번 했던 기억과 함께 그때는 그냥 지나갔기에 이번에도 그냥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심장 의사는 다른 검사를 한번 더하라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건가.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물었다. 뉴욕과 한국에 가야한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 사지 마!” 했다. 불안했다. 심장마비? 외국에 갔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나고 가라는 말이다.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막힌 곳도 없다는 결론이었지만 비행기 표 사지마! 할 때의 말은 정말 무서웠다. 늘 뛰는 심장이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심을 알고 감사하고 살자. revpeter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험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추천도서

-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 테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 어쩌다 거룩하게 / 나디아 폴즈웨이버, 윤종석역
- 일상의 유혹 / 손성찬, 토기정미
-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 박영로, 복있는사람
-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 이인미, 시시울
-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 김기석, 도서출판 KMC